



김호석 화백의  
화폭 속 선지식  
송담 스님

# 번민과 고뇌 '자기승화' 계기로 작용



송담스님, 143×74, 종이에 수묵 채색, 2015

송담 스님을 그리기로 하였다. 경허, 만공, 전강 스님의 선택을 잇는 우리시대의 대선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님을 친견할 기회가 없었다. 더욱이 용주사의 사대로 스님께서 조계종단에 탈종선언을 한 직후여서 더욱 뱀기가 어려웠다. 그러던 중 서로 마음을 통하는 지인으로부터 송담 스님께서 인천 용화사에서 결제 법문을 하신다는 연락을 받았다. 모든 약속을 뒤로하고 다음날 용화사를 찾았다.

용화사 법보전은 입추의 여지없이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건물 밖의 복도는 물론이고 계단 아래까지 스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대선사의 위용을 실감했다. 스님의 법문이 어떠한가에 이토록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지 의아했다.

법문 시간이 되자 송담 스님께서 법상에 오르셨다. 그리고 주장자를 높이 들더니 사방을 향해 들어 보이면서 대중들의 눈을 살펴보고 이내 법상을 내리쳤다. 법당 안 밖은 숙연했고 진리를 탐구하려는 듯 살아있는 에너지로 충만해 보였다.

스님의 법문은 '이 뭐꼬?'에 대한 화두였다.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공간을 우렁우렁하게 할 정도로 힘이 있었다. 스님의 눈은 우아하게 보였으나 동공에는 심지가 있어 사람을 쏘아보는 기백이 가득했다.

법문이 끝나자 다시 주장자를 높이 치켜들고 사방을 휘둘러 대중들의 뺨을 보시더니 다시 팽 내리치셨다. 그 소리는 스님의 법을 이해하는 자를 아직 찾지 못한 신호이면서 법구망신의 분발을 촉구하는 가르침이었다.

법상에서 내려 걸어 나오는 순간 나는 스님 앞이나가 잠시 서 계실 것을 요청 드렸다. 그러자 송담 스님께서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계시며 누군지도 모를 사람에게 눈길을 맞추어 주시는 게 아닌가? 그 순간은 3분여로 매우 짧았지만 스님의 모습을 눈앞에서 세심히 관찰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스님의 왼쪽 뺨에서는 한량없는 감정이 교차되고 있다. 분명 스님은 낮은 자세로 예의조차 갖추지 못한 자에게 미소를 보이셨지만 눈빛의 파장은 삼각 형식으로 내의를 꿰뚫고 있는 듯했다. 스님의 빛은 그만큼 강력했다. 다시 스님의 손을 관찰했다. 굵디고운 손이었지만 손마디마디에는 굳은살이 박여 있었다. 이는 결코 스님의 구도 행위가 편안하지 않은 지난한 과정을 관통했었던 것이라 짐작하게 했다.

나는 스님을 뵈 이후 스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면서 스님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다. 먼저 스님의 얼굴을 그렸다. 스님의 인상은 순하다. 전체적으로 어려움 없이 성장한 좋은 가문의 어진 인품을 타고 난 것으로 추정된다. 눈은 성현의 눈썹처럼 귀티 있었지만 눈빛은 강하다. 눈두덩은 두툼하여 자신의 의지를 관찰시키려는 의지가 숨어있다. 강한 신념이 읽혀진다. 안경은 도수가 없는 보안경이다. 아마도 눈물샘을 조절하기 위한 수정 안경이거나 아니면 눈빛이 너무 강하여 그 빛을 감추기 위한 도구인지도

모른다.

눈썹은 아래로 향하고 있으며 술은 풍성하다. 이런 눈썹의 형상은 스님의 인상이 결코 평범하지 않은 도가의 상을 연상하게 한다. 코는 선이 굵고 곧추 서 있다. 그리고 코 선이 뚜렷하며 끝에는 기운이 모여 있다. 코 망울은 맑고 수려하다. 인중은 선이 숨어있어 청수한 이미지를 자아내게 한다. 입은 얇고 섬세하다. 형태만으로 보면 말을 아끼는 과묵한 성격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신중함도 느껴진다.

턱은 넓고 선이 뚜렷하다. 하악골의 모습은 남성적인 의지의 소유자임을 느끼게 한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신뢰와 경외감을 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귀는 아주 크고 길며 두툼하다. 특히 귀가 서 있고 귓볼이 북서러워 상대를 배려하는 겸손이 몸에 배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는 친견했던 스님의 인상을 되 뇌이며 그림을 그려 나갔다. 평소의 모습 그대로를 그리고 싶었다. 그 인상 속에는 깊이 있게 들여다 보지 않으면 읽어내기 어려움, 아름다운 번민과 고뇌의 순간들이 읽혀졌다.

안이 열리는 '확철대오(廓徹大悟: 확연히 꿰뚫어 크게 깨우침)'의 순간을 맞는다. 스님의 나이 31살이었다. 이후 전강 대선사로부터 인가를 받게 된다.

달마대사로부터 전법을 이은 혜가 스님도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불교뿐 아니라 유가인 맹자 고자편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하늘이 장차 대임을 그 사람에게 내리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마음과 뜻을 괴롭히며 그 힘줄과 뼈를 고달프게 하고, 그 몸과 살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을 곤궁하게 하며 행하는 일마다 자신의 의지와 엇갈리게 한다. 이로써 마음을 분발하게하고 인내심을 강하게 하여 지금까지 그가 능히 하지 못했던 일을 해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 로마서에서도 환난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화가도 마찬가지로이다. 지난한 세월이 당시엔 견디기 어려운 것이지만 바로 그 고통이 예술적 자양분으로 되돌아와 창작의 원천이 된다.

번민과 고뇌는 인간을 육체 뿐 아니라 정신마저 피폐화 시킬 정도로 고통 속으로 몰아넣지만 때로는 새로운 자아에 눈뜨는 자기승화의 계기로 작용한다.

송담 스님께서 손가락을 다쳐 無(무)화두를 깨친 것은 수행의 어려움 속에서 깨달은 결과를 얻은 것이다. 스님의 초상화는 여기로부터 출발한다.

### 3분 간 스님 눈 맞추며 관찰 아름다운 번민과 고뇌 발견 과거 손가락 다쳐 고통 받던 중 無(무)자 화두 깨우쳐

스님은 분명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훌쩍 뛰어 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 잘은 모르나 이 어려움이 스님이 모든 공안을 타파한 것일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순간 나는 광주 용화선원에 찾아가다. 목적은 원감 스님을 만나 송담 스님의 초상을 그리는데 대신 모델을 서 줄 것을 부탁드리는 거였지만, 기실 송담 스님에 대한 살아 온 과정과 구도 행적 그리고 깨달음을 위한 무아의 경지를 묻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원감 스님이신 성조 스님은 스승의 그림을 위해 최선의 배려를 아끼지 않았지만 자신이 스님의 분신처럼 모델이 된다는 점에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은 양 주저하였다.

모델을 취해준 후 선방수좌 스님 네 분과 대화를 나누었다. 이때 스님에 대한 일화도 들을 수 있었는데 이런 일화들은 스님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송담 스님이 냇가에 징검다리를 놓으면서 손가락을 다친 적이 있다. 다친 손가락의 깊은 상처는 지혈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참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워 손가락 끝을 묶어 천정으로 끈으로 메달아 누워있었다. 이때 스님은 불편듯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면서 순간 無(무)화두를 깨치게 된다. 그러면서 1700 공



神, 53×70, 종이에 수묵, 2015  
동양 예술의 정수는 神이다 그러나 정신은 눈에 보이는 것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 까지 포함한다.



## 화엄경 논강 (華嚴經 論講)

청량소 + 통현장자의 화엄론 +  
진귀스님의 진귀론으로  
통합 논강을 합니다.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1년차)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2년차)

진귀스님의 화엄경 책은 「붓다북」이나 「화엄경강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우리는행 1005-002-700714(화엄경강원)

### 화엄경은?

- 한국 불교 실천수행의 주류는 선 이요, 이 선의 사상적 토대가 되는 것이 곧 화엄사상이다.
- 화엄사상의 근간은 선정삼매를 바탕으로 하며
- 화엄경은 세존께서 해인삼매에 드시어 증명하시고 문수보살이 물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면서 각 설주 보살들께서 깨달은 경계를 설한 경전이기에 수행하는 모든이들은 화엄경을 수행나침판으로 삼아야만 부처님의 법맥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자신들의 수행법으로 수행정진 할 수 있을 것이다.
- 2015년 현재 대한민국의 불교 수행현실은 세속적 어려움 못지 않게 일부 소수의 수행자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수행자들은 각종 수행 고난과 병통 그리고 어디로 나아갈지 몰라 방황 하고 있다.
- 이러한 오락약세에 화엄경은 수행자들에게 감로수와 같음에도 10중 9은 화엄경을 멀리하고 있고 오래 전 대교과에서 잠깐 본게 전부 다인게 한국 수행자들의 현실이렇게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 출가 수행자나 재가 수행자 중, 기 인연되어 화엄경을 항상 가까이 두고 선교쌍수하는 수행자 분들은 혹 원생신으로 이 땅에 오신분이거나 선근공덕이 수송하여 부처님으로부터 곧 수기를 받을 수행자 일 것이다.

괴자진귀

화엄경 강원 : 문의 1899~9532

소중한 분들께 마음의 등불을 선물하세요 ~

##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쑥양초 세트 · 밀납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쪽양초는 그늘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약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잠lessness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구성: 6개 ·가액: 30,000원  
·크기: 높이 18cm x 지름 6cm



지리산 토종 꿀을 생산하는 양봉원과 계약하여 독정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품질이 우수합니다.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벌레 등이 접근하지 않으며 실내 공기 정화도 뛰어납니다.

·구성: 6개 ·가액: 30,000원  
·크기: 높이 18cm x 지름 6cm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